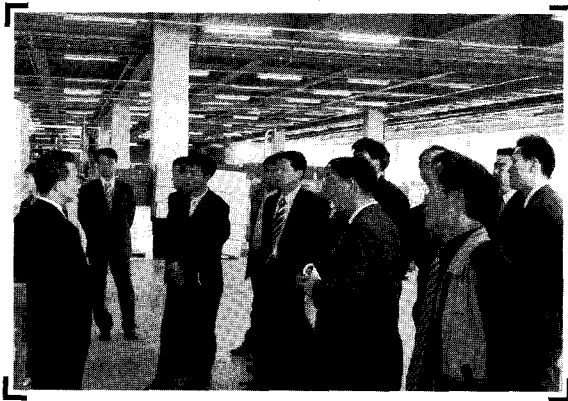


21세기 대한민국 출판물류의 선진화 구현을 위해 노력



출판업은 그동안 복잡한 유통경로, 중복거래, 과다 밀집, 어음거래 등의 고질적인 병폐로 영세성을 면치 못해 왔다. 이처럼 수십년간 쌓여온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물류공동화와 물류혁신으로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출판단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주)북센(대표이사 : 안경갑)의 출판물종합유통센터가 그 역할을 맡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에 (사)한국물류협회 물류본부장/부서장 포럼은 지난 4월 한국로지스틱스학회가 수여하는 한국로지스틱스 대상의 중견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한 (주)

북센의 출판물 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하였다.

북센은 지난해 6월, '21세기 대한민국 출판물류의 선진화 구현'이라는 기치아래 『출판물종합유통센터』를 완공하고, 국내 제일의 출판물 종합물류회사로서 출판유통현대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판물종합유통센터는 2만 1,000평 대지에 1만 5,000평의 연면적, 물류동과 사무동으로 나뉘어 있다. 물류동의 1층은 8,000평 규모에 각종 자동화시설을 통하여, 입고부터 보관, 출고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1만 4,000셀(2,700만부)을 처리할 수 있는 파렛트 타입의 자동화 창고와 200만부를 처리하는 파렛트 랙 자동창고, 버킷 자동창고, 중량 랙과 경량 랙 등을 설치하여, 3,300만부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분류설비로는 출판사, 서점별, 도서별로 분류할 수 있는 Piece Sorter(도서 분류기)와 행선지별로 분류하는 Parcel Sorter(박스 분류기)가 설치됐다. 네덜란드의 유로 소트 제품인 Piece Sorter는 205개 슈트가 설치돼 시간당 8,500 박스를 처리하고, 일본 호쿠쇼 제품인 Parcel Sorter는 35개 슈트로 시간당 4,500개 박스를 처리한다.

그리고, 스테커 크레인 16대, RTV 5대, 컨베이어 등이 운반에 이용되고 있다. 책이 입고되면 일부는 자동창고에, 일부는 집적을 위해 컨베이어를 타게 되며, 도매와 3PL에 따라 존이 나뉘게 된다. 또한 입고장에서만 지게차가 일부 쓰일 뿐 센터내 모든 흐름은 2,900m의 컨베이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안경갑 대표이사는 “북센은 최첨단 시스템을 통한 끊임없는 물류합리화와 정보화를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각 출판업체들과의 POS시스템 등을 연계해 합리화를 추구할 것이며 현재 출판에 국한돼 있던 3PL의 영역을 확대해 화장품, 완구류 등 박스로 핸들링이 가능한 분야도 취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센은 앞으로도 서점의 EDI주문을 확대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출판유통현대화 사업의 일환인 출판유통정보 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를 통해 출판산업 SCM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버킷과 파렛트에 적용해 운영중이 RFID태그도 각 아이템 도서에 적용시켜 화물추적·도난방지·반입·반품·지불 등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간소화시킬 예정이다. **물류**

제과업계 최고의 물류시스템 구축



롯데의 모기업 롯데제과(대표이사 : 한수길)는 1967년 설립 이래 고객들의 사랑과 신뢰 속에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창립 이래 40년동안 영등포와 양산, 평택, 시흥, 대전에 첨단 시설을 완비한 대단위 공장을 갖추고 껌, 캔디, 비스킷, 초콜릿, 스낵류 등의 건과류와 빙과류 등 200여종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2000년 8,810억원, 2002년 1조 87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에는 1조 1,459억원을 기록, 제과업계의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롯데제과가 제과업계의 1위를 고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과업계 최고의 물류시스템 구축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좀처럼 물류센터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공개가 거의 없었다. (사)한국물류협회 본부장/부서장 포럼은 롯데제과의 협찬으로 의왕물류센터를 방문하면서 제과업계 최고의 물류시스템을 견학하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롯데제과 물류의 중장기 비전은 물류인프라와 프로세스를 올해에 개선하고, 2008년에는 SCM체제 구축과 물류 서비스 질 향상, 3PL 그룹과 공동물류를 추진하여 2010년에는 초일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롯데제과 의왕물류센터는 2003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부지면적 3,000평에 연면적 4,300평 규모로 창고동 3,756평, 사무동 501평이며, 창고동의 지하1층과 지상 1층은 상온창고, 지상 2층은 저온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배송권역은 수배송 차량 200여대로 수도권 남부와 경기지점 영업소 19개, 대리점 2개를 담당하며, 24시간 운영체제로 물동량 최대 11만박스, 평균 9만박스를 처리할 수 있다.

시설로는 WMS 서버로 Window 2000 2기, Data DB 2기, 입출고 작업을 위한 PDA 단말기 20대, 바코드를 프린터 할 수 있는 라벨 프린터 5대, 작업정보를 네트워크화 하기 위한 무선중계기 14대, 작업자와 운송자의 작업진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문자 전광판, 업무지시, 작업정보 공유를 위한 센터내 통신으로 무전기 등이 사용되고 있다.

건과 7개, 빙과 6개 라인, 건강식품까지 운영하면서 총운영 품목수 건과 500종, 빙과 200종에 이르며, 이들 제품 대부분의 유통기한이 5개월에서 1년으로 매우 짧지만, 제품별 유통기한 분석과 제품별 ABC 관리 등을 통해 물류센터 운영현황을 실시간 본부에서 확인 점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출고부족예상제품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시스템 자동관리로 제품의 신선도를 최적으로 유지하면서, 영업지원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WMS도입으로 재고관리의 가시화, 유통기한 관리를 통한 신선도관리 제고, 작업자별 실적 관리를 통한 작업의 효율화와 실시간 물류정보 공유를 통한 영업지원 강화 등의 효과를 거뒀다. **물류**